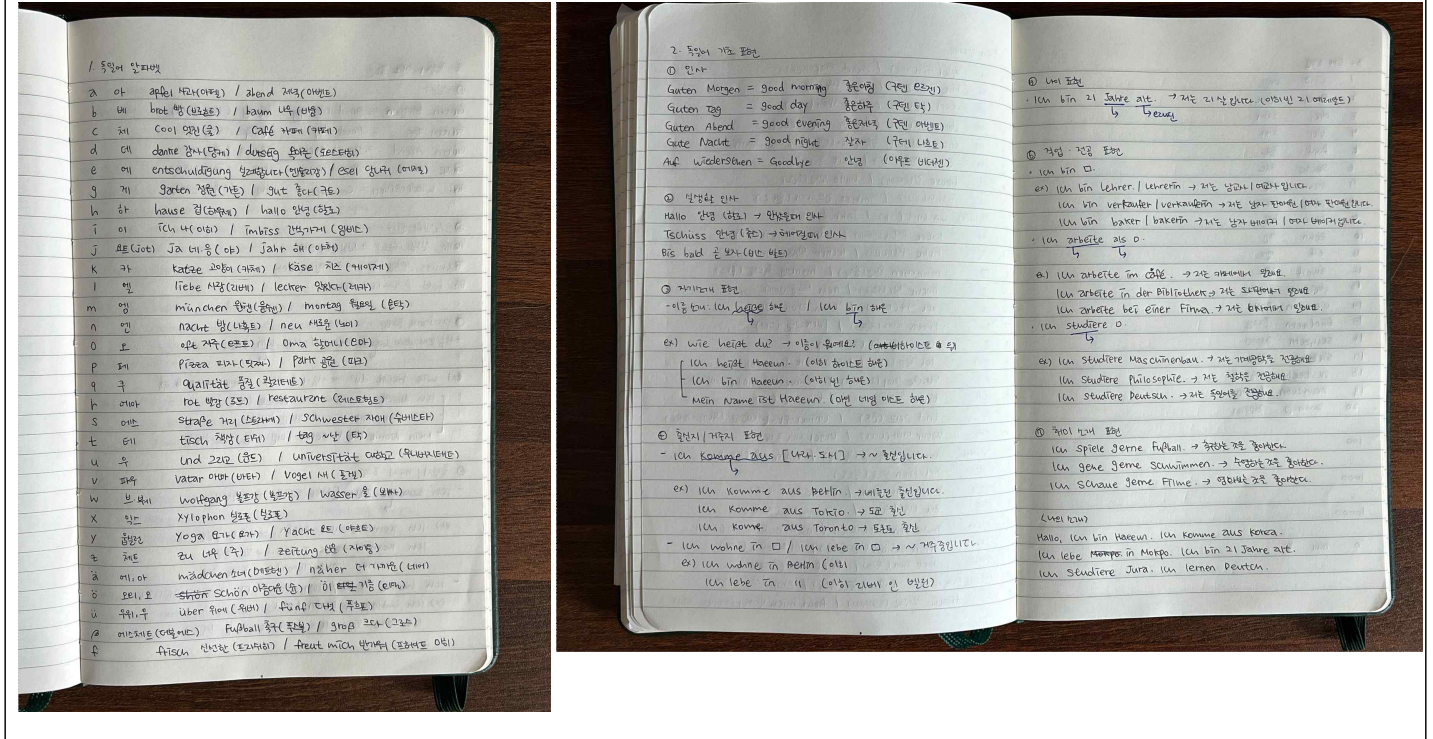


[2025 하계] 셀프 디자인 프로그램 귀국(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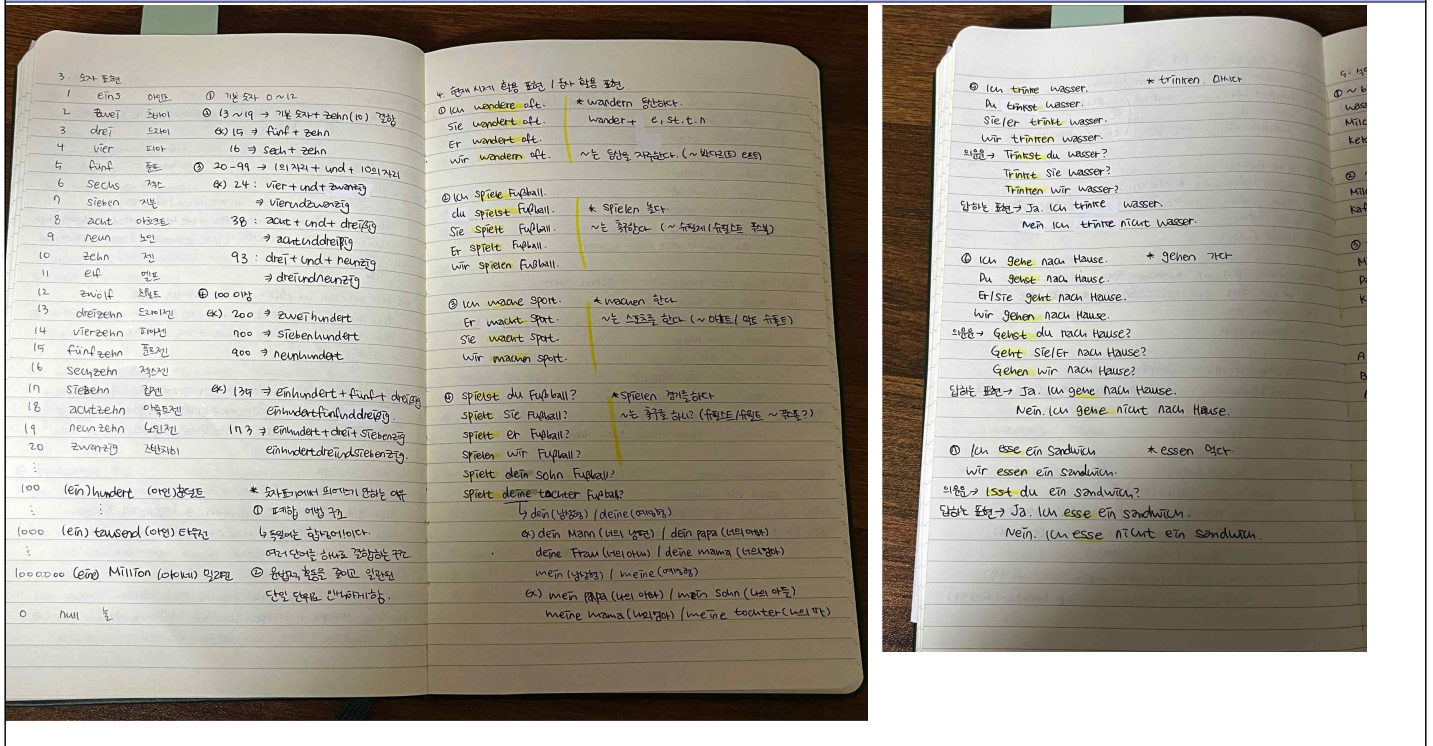
1. 독일어 어학연수 공부 내용

* 목표: 학습한 독일어 표현 노트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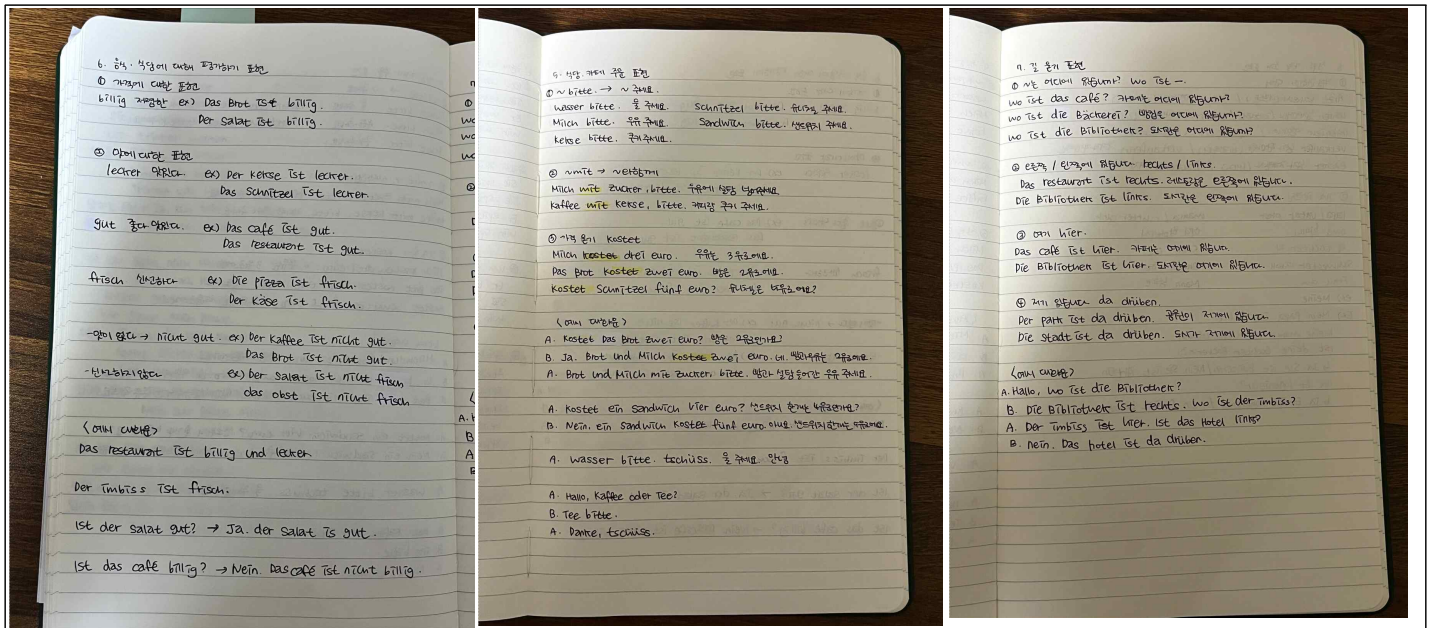
1주차: 알파벳, 인사말, 자기소개 표현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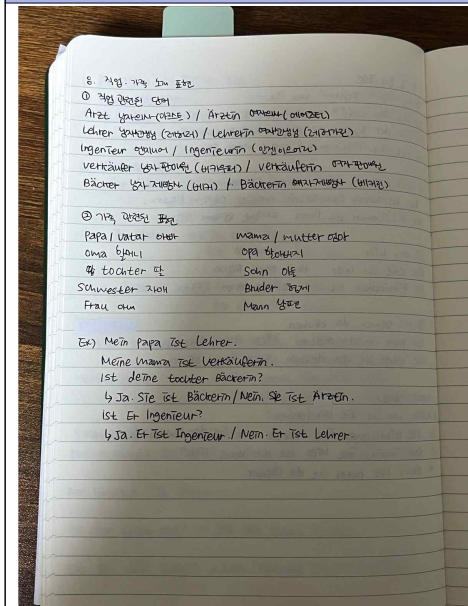
2주차: 숫자, 현재 시제, 동사 활용 표현 익히기



3주차: 주문, 음식, 가격, 길 묻기 표현 익히기



4주차: 직업, 가족 소개 표현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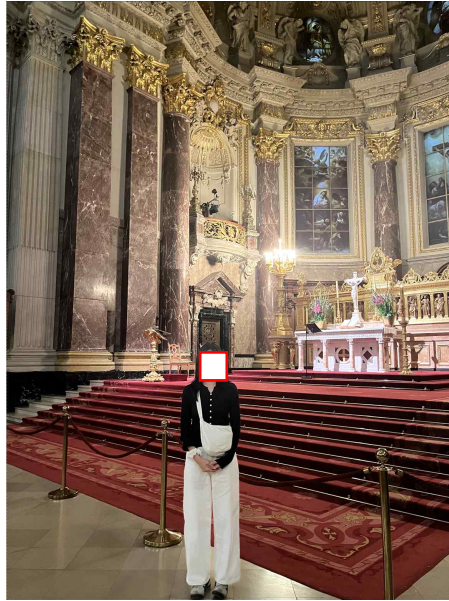
2. 독일 문화 체험

브란덴부르크 문



문화 체험 소감문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느낀 법과 역사
20240681 이혜은
독일은 관광지를 통해 법학의 역사를 깊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나라다. 그중 브란덴부르크 문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독일 법의 역사와 정치의 상징적 장소로서 매우 많은 의미를 지닌다. 원래는 '평화의 문'으로 지어진 문이 나폴레옹의 침공, 나치 정권의 통치, 동독 공산 체제를 거치며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변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현재는 자유와 화합,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하였다. 법학과 학생으로서 이 장소가 주는 법적 시사점과 성찰은 매우 깊다. 나치 독재와 동독의 전체주의 정권 아래에서 법이 어떻게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를 통해 법의 정당성과 정의에 대한 고민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한다. 독일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바로 이러한 헌법적 가치들이 회복된 장소로, 헌법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독일의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법적 통합과 헌법 질서의 확장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브란덴부르크 문은 법과 통일의 접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처음 브란덴부르크 문을 마주했을 때는, 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이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그 앞에서 아이들은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놀고,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독일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법치주의를 회복해낸 독일의 강인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나에게, 독일의 아픈 역사의 현실과 오늘날의 자유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한 나라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거대한 역사책으로 느껴졌다.

베를린 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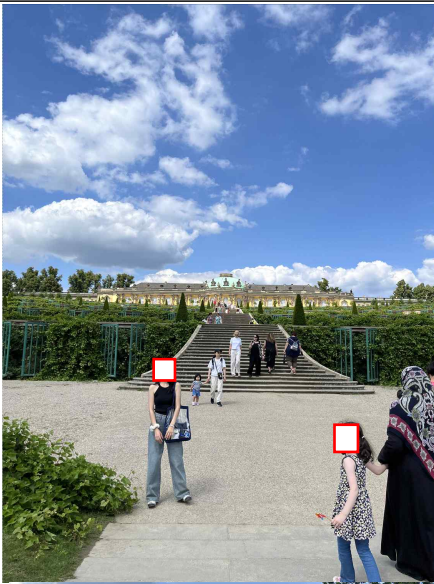
TV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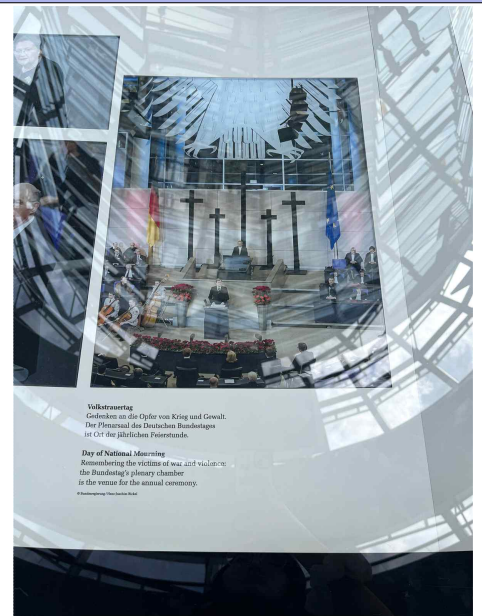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포츠담 상수시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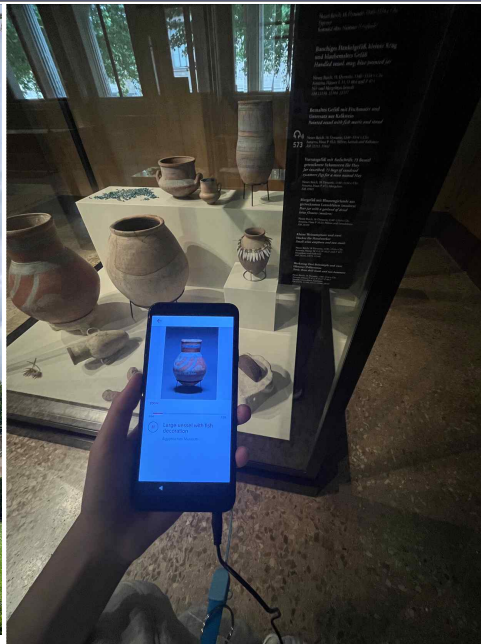


독일 국회의사당(라이히스타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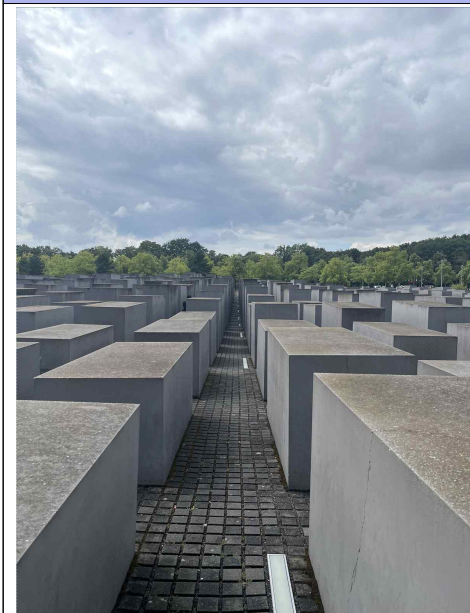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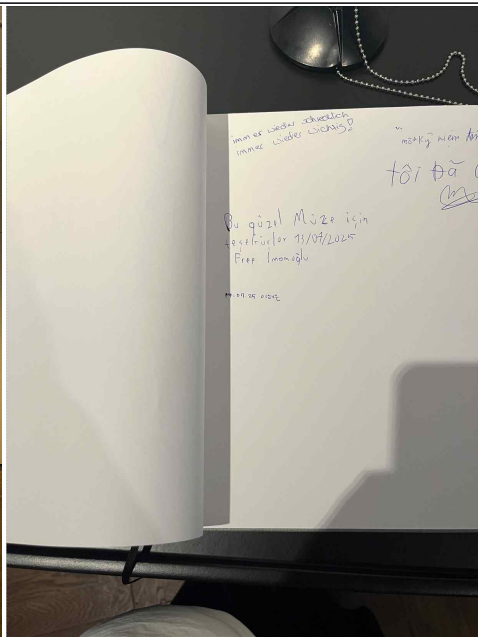
베를린 신 박물관



학살된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



베를린 역사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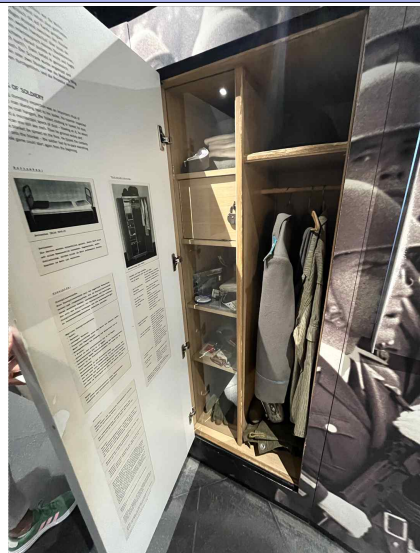
독일어로 영화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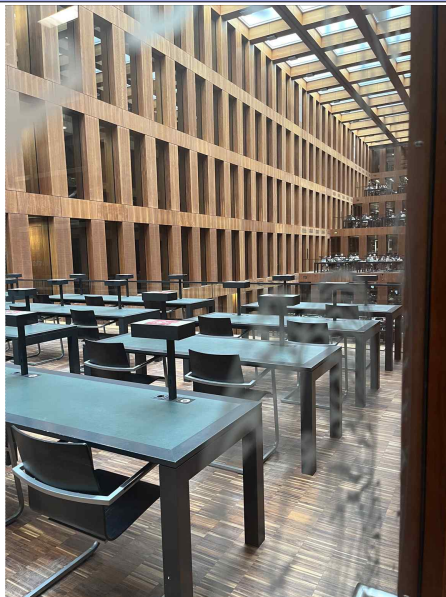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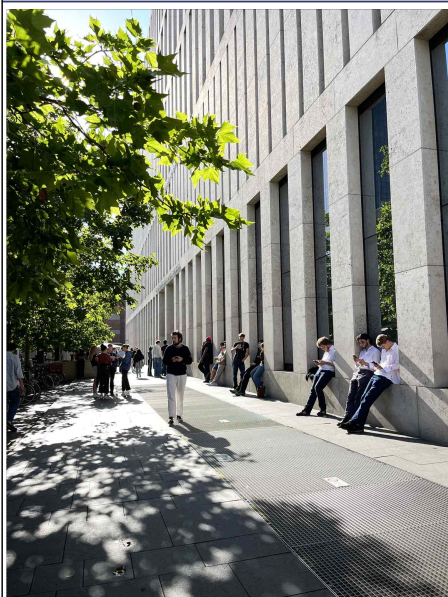
베를린 돔 오르간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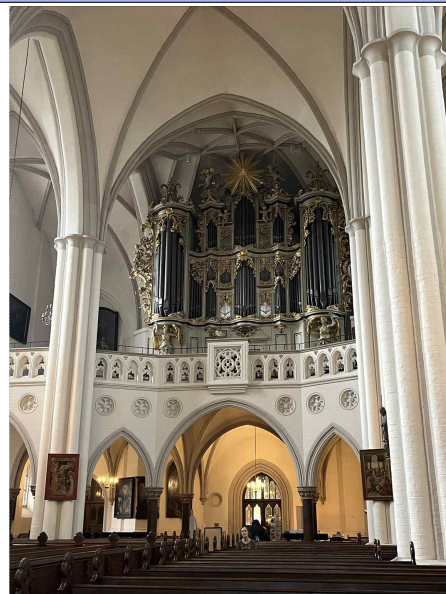
구 동독 박물관(D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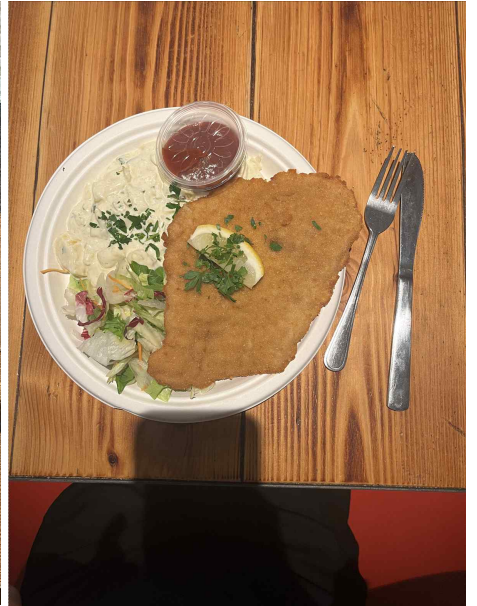
훔볼트 대학교 도서관



St. Marienkirche



독일 음식



알렉산더 광장

